

월요광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우석대 석좌교수

회진현(會津縣)은 고려 때부터 나주(羅州)에 병합되어 지금은 나주시 다시면 회진리라는 마을 이름으로 부르는 곳이.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지만, 회진은 오래전부터 '시집'(詩話)이라는 별칭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시인들이 모여 사는 '점방', 끊임없이 시인들이 태어나 명성을 날리면서 시인촌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어떤 시인들이 모여 살았을까. 본디 그 마을은 나주 임씨의 본고장이다. 나주 임씨는 집성촌이 회진이어서 '회진 임씨'라고도 세상에 널리 알려졌는데, 그 가문에서 많은 시인들이 배출되었다.

회진 임씨가 크게 알려지기는 기묘사화 때 태학생(太學生·성균관 학생)으로 소수(疏首)가 되어 정암 조광조를 구출하려 했던 귀래정(歸來亭) 임봉(林鳳 1486~1553)이 문과 급제자로 중앙 무대에서 활동하던 때부터였다. 귀래정은 시문에도 뛰어났지만, 한림·속당을 거쳐 승지와 경주부윤 및 광주목사 등의 화려한 벼슬을 지내고 기묘명현이라는 절의를 지킨 인물로 큰 명성을 얻었다.

그의 둘째 아들 풍암 임복은 문과에 급제했으나 벼슬 보다는 강호에 묻혀 살면서 일생을 시인으로 살아갔으

천재 시인 백호 임제의 시혼(詩魂)

니 회진의 '시집'은 그분에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풍암의 아우 절도사 임진은 무인으로 큰 이름을 얻었는데 임진의 아들이 바로 백호(白湖) 임제(林弟 1549~1587)였다. 시인 풍암은 바로 백호의 중부(仲父)였으니 백호의 시는 바로 중부로부터 이어졌다고 여겨진다.

백호는 형제 네 사람이 모두 시인들이었으며 아들 4형제 또한 호절스러운 시인들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더구나 중부 풍암의 아들 석촌 임서는 백호의 종제(從弟)로 문과에 급제하여 황해도 관찰사를 역임한 고관인데 시인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더구나 백호의 아우 승정 임환은 김천정 장군과 함께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이면서 시인으로 큰 이름을 얻었다. 이만하면 한 마을에서 배출한 시인들 때문에 그 마을을 '시집'으로 부르기에 낙담하다고 생각된다.

나는 1988년 2월 광주일보에서 간행하는 월간지 '예향'에 '모순의 세속(世俗). 풍류와 자주의식'이라는 제목으로 '백호 임제론'을 게재하였으며, 바로 이어서 출간한 '다산기행'(茶山紀行)(한길사)이라는 저서에도 그 글을 실어 천재 시인 백호를 세상에 널리 알린 바 있다. 이제 그 책을 다시 펴 보며 백호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니 감개무량한 생각이 든다. 그해 연초의 흑한을 무릅쓰고 회진 마을 백호 유적지를 답사하고 그곳에서 떨지 않은 임씨들의 종산(宗山)인 신결산에 올라가 백호 선생 묘소에 참배하던 때의 기억이 새롭다.

조선왕조 16세기 후반은 사람들이 정치적 승리를 얻어 내고, 예교(禮教)와 성리학의 토착화 및 체계화로 사대부 사회가 맞이했던 문화적 전성기였다. 그러나

그 시기에 벌써 사대부 사회와 문화의 한계가 여지없이 드러났던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동서봉당이 일어나고 역육(逆續)이 이어지면서 부패한 관료들의 가렴주구가 이어졌다. 이윽고 왕조정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임진·병자 변란을 겪게 되는 비운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 유교라는 강고한 틀로 명교사회(名敎社會)가 굳어지면서 사대부 사회의 유규(儒規)와 예교가 자아나 주체의식의 상실을 초래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삶이 질곡에 빠지면서 그러한 내부의 모순을 깊은 관찰로 대처하려 했던 올바른 지식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때 천재적 지식인 백호는 문과에 급제한 기득권자로 세속에 순응하고 예교에 따른다면 장래가 보장된 신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일반적 법규에 그냥 따르거나 세속에 순응할 수 없었다. 뛰어난 시인 정신의 소유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결코 '기기(奇氣)를 버리지 못했다. 모순의 세속에 저항하고 허위와 가식의 가면 지식인들의 행태에 동조할 수가 없어, 그는 전국의 산천을 유람하고, 풍류의 시심을 기우며 전형적인 시인의 세계에 빠지고 말았다.

비록 39세라는 짧은 생애로 요절하고 말았지만, 그의 풍류정신과 자주의식을 볼 때 아우 임환이 의병장이 되고 동시대 선후배 시인들인 고경명·양대박 등 탁월한 시인들이 임진왜란의 의병대장이 되었던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기생지나 술집에서 시를 지으며 날을 새우던 그의 시인 기질은, 가난한 백성들을 잊지 못하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걱정하는 시혼으로 승화되어 호남이라는 의향(義鄕)의 뿌리를 심어 주는 자주의식의 바탕이 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간 경계 조정 민·관·정 협력이 답이다

한 찬성과 반대 여론은 여전히 팽팽하다. 정치권과 일부 자치구 주민들 간에 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산 넘어 산이다. 구간 경계 조정의 경우 복수의 자치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어느 지역은 손해를 보고, 또 이익을 보는 '제로섬 게임'으로 속단해서도 안 된다.

최근에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가 행정 구역 경계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조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사소한 이해관계를 접고 경기도의 중재와 양 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정안을 도출해 낸 끝에 합의에 이르렀다. 광주광역시도 2011년 10월 소폭의 경계 조정을 단행한 이후 추가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왔으나 매년 지역 여론이 한데 모이지 않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다 10여 년 만에 다시없을 호기를 맞았다.

구간 경계 조정은 찬반 여론을 떠나 자치구 행정 구역이 '주민의 행정 서비스 권역'이라는 대전제가 무색하게 정치적 선거 구역으로 퇴색되어 중세 영주의 영지와 같은 통치 구역으로 변질되어선 안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인구 불균형 해소, 주민 편의 제공,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경계 재조정은 꼭 한번은 넘어야 할 산이다. 관건은 지금의 파이를 누가 더 많이 지켜 내느냐가 아니라 광주 안의 지역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해 낼지,

광주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어떻게 높여나갈지를 중심에 놓고 경계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정치인들의 이해관계는 최소화하되, 시민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가능한 지역 생활권, 문화와 역사,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 존중해야 모두가 희망하는 구간 경계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 본다.

경계 조정은 정치권, 지역 주민 등 모두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쉽지 않은 산이다. 그럼에도 5개 자치구의 기형적인 비대칭의 골레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지속 가능한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의 삶과 공동체성을 존중하면서도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관·정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1세는 "속고할 시간을 가져라. 그러나 행동할 때가 오면 생각을 멈추고 뛰어들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 정치권은 당장 눈앞의 이익과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시 발전을 위한 긴 안목으로 상생의 정신에 입각해 힘을 모아야 한다. 시민을 감싸 안으면서 타당한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는 합리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물줄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관습으로 굳어진 부당함을 핀셋으로 골라내고 상처가 덧나지 않게 다듬어 가는 세심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치의 세계화, 김치대학 설립이 대안이다

태와 소제가 유사했다. 그러나 마늘·고춧가루·젓갈 등을 혼합해 발효까지 시키는 우리 김치를 일본과 중국은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과 중국을 떠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런 김치를 만들 수 있다. 그럼에도 그들이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것이 '김치'라는 이름이다. 그래서 90년대 일본인들, 그리고 요즘 중국인들이 시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치라는 이름만 꼭 지키고 있으면 김치의 세계 평정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중국은 전 세계 8억 명이 넘는 화교 상인을 통한 세계화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은 내수 소비력과 엄청난 규모의 '해외 경제집'을 통한 일본 '기무치'의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적으로 그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 우리의 김치센터나 김치연구소로는 역부족인 만큼 김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그 대안으로 김치대학의 설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2~4년제, 기능 및 정규 김치대학을 만들어 김치의 명칭에 대한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고, 나아가 식품으로서의 질적·위생적 권위를 체계화·세계화해야 한다. 먼저 1차로 500명 규모로 학생을 모집하는데 외국인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여, 명실상부한 한류를 대표하는 '세계 김치대학'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김치 재료 개발을 통한 상품의 다양화와 고급화(유품기능)를 위한 육종·가공·보존·개발 및 2차 활용과 홍보 등을 전 문화해야 한다. 기초 기능반, 품목별 전문반, 명인반 등을 만들고 졸업생에게는 '김치 라이선스'를 주고, 졸업 후 귀국하여 본국에서 김치 사업에 종사케 해야 한다. 대학 설립도 학생 수의 감소로 애로를 겪고 있는 대학들과 협력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겠으나 반드시 국

립대학으로 설립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세계 김치대학'의 임무는 김치 종류의 확대 특히 현지 소재의 김치 개발, 김치 소재의 고급화와 규격 및 스태프와 생산의 일체화, 김치 생산의 중주국화와 분업으로서 해외 생산의 일체화, 권위 있는 김치 전문 잡지의 발간, 김치 장인의 선정과 해외 순례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치의 세계화를 위한 김치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거나 수입하고 있는 재료를 되찾아와야 한다. 물리적으로 되찾아 오지는 것이 아니라 질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내 생산을 늘려 중자·재료·생산·관리를 일체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김치 완제품 총생산량은 194.7만 톤으로 업체 생산량이 44.8만 톤, 가정과 외식업체 생산량이 122.3만 톤, 수입량은 27.6만 톤이며 이중 수출량은 2.3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김치 업체 종업원 수는 1만4155명이었고, 총생산액은 1조 175억 원이다. 1차적으로 김치대학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국내 생산량을 50%로 늘린다면 국내 김치 총생산액은 약 2조 원이 되고 여기에 졸업생과 해외 홍보 강화를 통한 20% 생산량 확대가 이뤄지면 김치의 총생산액은 3조 원을 넘게 되며, 많은 청년들이 김치 관련 사업에 고용되고 창업까지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처럼 김치대학은 우리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요즘 광주 전남의 통합과 상생을 화두로 대화를 시작하고 있어 협업 사업으로서도 좋은 대안적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시 영산포에 젓갈 실은 배가 들어오고, 송정역에 물산이 집합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꿔 본다.

社說

전남 지역 3년 만의 '조류 독감' 방역 철저히

영암의 한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나왔다. 전남 지역에서 AI가 발생한 것은 3년 만이다.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에서 올 들어 처음 AI가 나오면서 커졌던 확산 공포가 1주일 만에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당 농장 반경 10km는 170만 마리의 닭·오리를 키우는 축사 밀집 지역이어서 가금(家禽) 농가와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영암군 시흥면 육용 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농장의 닭·오리를 키우는 축사 밀집 지역이어서 가금(家禽) 농가와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남도는 AI 항원 검출 직후 가족방역관과 방역 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감염 경로 특정을 위한 역학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농장의 오리 9800

마리는 살처분됐고, 반경 3km 이내 10개 농장 닭·오리 49만 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하고, 44개 가금 농장에서 사육 중인 172만 마리에 대해 30일간 이동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7년 12월~2018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11건이 확진 판정을 받아 81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더욱이 전장은 전국 오리 가운데 44.7%(402만 마리)를 키우는 국내 최대 사육 지역이어서 AI가 확산될 경우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이 우려된다.

이제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중 삼중의 강력한 차단 방역이 절실하다.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과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소독은 물론 철새 도래지나 하천·저수지 등의 오염원 제거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가금 농가와 축산 차량 운전자들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것이다.

아시아문화전당 국가기관 지위 잃지 않도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정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2021년부터 전당을 '관련 단체나 법인에 완전 위탁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하면 전당은 국가 소속 기관의 지위를 상실, 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럴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려워 당장 한 달 뒤인 내년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 이병훈(동남읍) 의원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두 차례 대표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첫 번째 법안은 문화전당으로부터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의 위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또 두 번째 법안에는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국가 조직으로 일원

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최근 가장 90일이 소요되는 안건조정위 카드를 꺼내들며 발목을 잡고 있다.

문화전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기관화를 통한 기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정책학회에 의뢰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성과 평가 및 제안' 용역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국가기관화를 하게 되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인력의 전문성 및 고용 안정화, 조직의 일원화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 처리가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문화전당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無等鼓

언제부터인가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빛고을 성탄트리'가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밤하늘을 수놓는 오색의 아기자기한 불빛은 아늑하면서도 따스하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점화되면 자연스레 연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은 '하는 것 없이 또 나이란 먹는다'는 자책과 허전함으로 이어진다.

크리스마스 트리 외에도 이맘때면 부지

'하선동력'의 정마저 흐르하게 한다. 그럼에도 달력을 얻기 위해 은행을 전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걸 보면 여전히 아날로그의 추억을 무시하기 힘들다.

작년에 선물 받은 필자의 탁상용 달력에는 지난 1년의 일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다. 취재 일정과 인터뷰 약속, 지인과의 만남 등 세상살이의 다양한 흔적이 담겼다. 절로 미소를 짓게 하는 순간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도 있었으며 더러는 안타

까운 시간도 있었다.

마지막 남은 12월 달력 한 장을 바라보며 문득

정현종 시인의 시 한 수를 떠올려 본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밭을 갈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중략)/ 모 든 순간이 다야/ 꽃봉오리인 것을.."

그렇듯 알게 모르게 시간을 흘려가나 보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더 사랑하고 더 귀 기울이고 더 자신의 '결'을 내주었으면 한다.

/박성천 문화부 부장 skypark@

기 고



임택
광주 동구청장

지난 11월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광역시 균형 발전을 위한 경계 조정 준비기획단 제6차 회의'에서 소폭·중폭·대폭 세 가지 안을 놓고 위원들의 세 차례 표결 끝에 '중폭 개선안'이 최종 선택됐다. 북구다 선거구인 6개 동(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청담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 대강의 골자다.

올해 10월 말 기준 광주광역시 인구는 145만 2994명으로 5개 자치구별 인구는 동구 10만 2151명, 서구 29만 7527명, 남구 21만 5072명, 북구 43만 1684명, 광산구 40만 6560명 등이다. 최근 인구 10만 명을 회복한 동구와 북구의 인구 격차는 여전히 네 배 정도 차이가 난다. 그렇기에 향후 절차에 따라 중폭 안이 확정될 경우 좁혀지는 인구 격차로 지역 간 불균형, 행정 서비스 간극을 해소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 중폭 개선안이 최종 선택됐지만 구간 경계 조정에 대

기 고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

최근 중국의 파오차이가 ISO(국제표준화기구) 세계 김치의 표준을 확립했다고 환영 매체까지 동원해 요란을 떠는 바람에 김치가 다시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도 1990년대 우리 김치가 일본을 휩쓸어 가자, 김치의 일본식 명칭인 '기무치'(Kimuchi)를 세계 표준어로 지정하자고 난리법석을 떠는 적이 있다. 하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996년 3월 우리나라의 주장을 인정, '김치'(Kimchi)가 세계적인 표준어가 된 바 있다.

그런데 중국은 왜 예전 일본이 했던 구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환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동원하여 왜, 한복에 이어 김치를 또다시 자기네 문화의 하나로 중속시키고자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채소를 소금물로 절이는 염장문화가 일본과 중국에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오이·양배추·배추 등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류를 소금에 절인 식품은 일본에서는 '쓰케모노'(漬物), 중국에서는 '파오차이'(泡菜)라고 부른다.

그런데 두 나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김치에 유독 시비를 걸고 질투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김치가 가장 우수한 식품이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3국의 김치 모두 형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주최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